

# 지속가능한 낙농경영을 위한 제언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영남대 명예교수)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국내 낙농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가 낙농현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을 공유함과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각자의 역할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최근 국내 낙농을 둘러싼 주요 현안은 무엇이며, 낙농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대내적인 현안으로는, 200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우유소비감소와 2018년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허가축사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우유소비문제에 한해서만 살펴보겠다. 연간 1인당 백색시유소비는 1997년의 31.5kg을 정점으로, 2015년 현재 26.6kg까지 감소해, 연평균 0.93%의 감소율을 나타내 왔다. 유사한 식생활패턴을 지닌 일본은 연간 1인당 백색시유소비가 1994년에 35.9kg으로 정점을 형성했다. 그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현재 24.4kg으로, 연평균 1.78%의 빠른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 그 같은 일본의 감소추세는 금후에도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 같은 소비감소에 대응해서 치즈, 분유, 연유, 생크림, 탈지농축유 등 국산유제품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낙농의 생산기반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산유제품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백색시유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상에서 사실상 시유생산에 국한된 국내 낙농이 그나마 현재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백색시유의 소비감소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후 출산율저하, 고령화, 안티밀크 등 우유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점차 심화될 경우 백색시유소비가 보다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그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소비확대를 위한 낙농인 모두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시장을 통한 소비확대가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아울러 2015년 현재 51.1%에 불과한 초·중·고의 우유급식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유급식과 함께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해 우유급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낙농가는 자조금사업에 적극 동참함과 아울러 우유자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낙농정책연구소에서 코리아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우유소비조사결과」를 보면, 우유구매를 결정하는 기준(복수응답)으로, ① 제조사 및 브랜드(59.6%), ② 가격(50.0%), ③ 유통기한(3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도 가격이 소비자의 우유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금후 우유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가격의 적정유지와 이를 위한 생산비절감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생산비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2015년 우유생산비조사결과」를 보면, ① 사료비(55.9%), ② 자가노임(13.3%), ③ 가축상각비(10.2%)의 세 가지 비목이 우유생산비의 7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비목에 대한 비용절감이 없이는 사실상 우유생산비절감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들 비목의 절감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낙농은 농업 내부에서도 다른 어떤 부문보다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는 낙농이 타 생산부문에 비해 다수의 하부구조(사양, 번식, 도태, 조사료, 개량, 분뇨처리 등)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하부구조에 대해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느냐가 경영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과거 일본 북해도의 낙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자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

한 바 있다. 그 결과 우유생산비의 약 10% 정도가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경영능력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1979년에 농업경제학자로서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학의 슐츠 교수는 농업경영에 있어서 경영능력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해독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도전정신이라 했다. 그러므로 관습적인 경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문서적구독, 낙농관련 세미나와 교육 참여, 낙농선진국에 대한 해외연수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술한 세 가지 비목의 절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료비절감을 위해서는 산유능력에 따른 철저한 개체관리를 통해 사료효율의 극대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투입과 산출에 대한 철저한 기장관리를 바탕으로, 사양관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경영의 계수관리(係數管理)가 필요하다.

둘째, 노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유지와 최근 점차 도입이 늘고 있는 착유로봇을 포함한 각종 자동화시설 및 스마트낙농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신기술도입에 따른 과잉투자과 노동의 연중구속성을 완화하기 위해 헬퍼를 활용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축상각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경산우의 경제수명이라 할 수 있는 산차(産次)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질병 및 사양관리와 번식간격을 단축시켜 공태(空胎)기간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낙농가의 이같은 생산비절감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업체 및 소매단계의 비용절감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FTA 체제 하에서 낙농을 둘러싼 대외적인 여건이 전례 없이 급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치즈를 중심으로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즉, 2015년 현재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총수입량은 1,853천 톤으로, 같은 해 국내 원유생산량(2,168천 톤)의 85.5%에 달한다. 그 가운데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치즈의 수입이 111천 톤(원유환산 1,239천 톤)까지 늘어나, 국내 원유생산량의 57.2%에 육박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우유자급률은 56.5%까지 하락해 일본의 63.0%를 하회하고 있으며, 금후 50%를 밀도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더욱이 약 5년 후에는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사실상 대부분 철폐됨에 따라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원유수급조절 및 국산유제품생산을 위한 정부주도의 낙농제도개혁이 절실한 정책현안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에 앞서 각 개별경영의 경영자는 자신이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영능력향상을 통한 생산비절감을 위해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FTA 체제하에서 경영의 내실을 다짐으로써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낙농경영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낙농경영이 되기 위해 세척수를 포함한 무허가축사문제의 원만한 해결노력 또한 게을리 할 수 없다. ㉞

